

September 26, 2006



박근혜 EU 관계자와 북핵·인권 논의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전 대표는 벨기에 방문 이틀째인 25일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핵 및 인권 문제 등 관심사를 논의했다.

박 전대표는 오전 이스트반 센트-이바니 유럽의회 의원과 만나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 지원이 절실하지만 북핵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바니 의원도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북 인권 문제 해결을 묻자 박 전 대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는게 북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대표는 또 북핵문제가 실제 위협인 지, 협박용인 지를 묻는 이바니 의원의 질문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바니 의원은 헝가리 출신으로 유럽의회 한반도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대표는 이어 오후엔 에네코 란다부루 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 총국장을 만나 EU 통합과 한-EU 통상협력 확대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환담을 나눴다.

또 저녁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들을 브뤼셀의 한식당으로 초청, 만찬을 베풀며 격려했다.

하지만 이날 일정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제임스 존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사령관과의 면담은 나토측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박 전 대표측은 "존스 사령관과의 면담은 나토주재 미국대사관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추진됐으나 갑자기 존스 장군의 일정이 바뀌어 만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대표의 이번 유럽순방은 독일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일각에선 본격적인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독일 방문에선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을 만나 '여성지도자'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벨기에 방문은 첫날 한국전 참전용사 위무로부터 시작해 이날 나토 최고사령관 면담을 통해 '안보지도자'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막상 면담이 불발돼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대표는 벨기에 방문 마지막 날인 26일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국민당 당수, 헤르만 드 크루 벨기에 연방 하원의장 등 EU 및 벨기에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며, 저녁 독일로 출발한다. (브뤼셀=연합뉴스)

September 26, 2006

Übersetzung

Park Geun-hye trifft sich mit EU-Angehörigen und diskutiert über Atomwaffen und Menschenrechte in Nordkorea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Geun-hye sprach am 25. September mit EU-Parlamentarier Istvan Szent-Iványi über die wirtschaftliche Lage Nordkoreas und die Aufgabe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Im Anschluss führte sie mit Eneko Landaburu, Leiter der Generaldirektion „Externe Beziehungen“ bei der EU, ein Gespräch über das Korea-EU Freihandelsabkommen. Abschließend aß sie mit Koreakriegsbeteiligten zu Abend.